

동성연애에 관한 목회적 관점

동성연애는 언론매체, 정부기관들, 그리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협약의 구조에 도전해 왔고, 사회의 강력한 기관들의 근간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변화시키는 특성에 관한 우리들의 성경적 이해에 대한 근본적 교리들에 도전하는 쟁점이다. 예수님의 공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는 능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케 되는 거룩한 성품에로의 성경적 부름에 대한 헌신에는 변함없이 남아있다.

동성연애에 관한 우리의 초보적 대응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해지고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8)라는 말씀 속에서 관습적인 종교적 사고방식에 도전을 주신 주님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유의 성경적 역할로 명백히 부르며 인간 사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이러므로 남자가 ...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창세기2장24절).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의 성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개인들을 대한 목회적 도전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반응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상처입고, 공허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분개하고 투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답변들은 성경의 증거, 교회의 전통에 관한 분명한 증거,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총체적 경험, 그리고 우리의 웨슬리안 신학에 기초한 이성적인 관점이 전제가 된 대답들이다.

동성연애에 관한 나사렛성결교회의 분명한 입장

나사렛성결교회의 입장은 나사렛성결회 장정과 중앙감독위원회의 공식선언문 중에서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나사렛성결회 장정, 2009년-2013년

D. 성생활

37.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의 성생활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위해 의도한 거룩한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본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 확인되고 표현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성생활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서만 향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들은 성생활을 서로에게서 물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스도께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더욱 폭넓은 헌신과 위임의 삶의 일부로 받아 들여야 한다.

기독교가정은 자녀들에게 인간의 성생활이 지닌 거룩한 속성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인내 속에서 결혼의 궁극적 취지를 실현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자들은 성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의 미덕을 찬양하는 한편, 성생활에 대한 일체의 기만 및 왜곡 행위를 엄히 경계하도록 강권해야 한다. 성생활 자체를 궁극적 취지로 삼는든지, 또는 음욕과 성 도착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악용함으로써 성생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에는, 그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 간의 결혼서

약 외에 일어난 모든 형태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성의 거룩성과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 죄악으로 여긴다.

동성연애는 인간 성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그릇된 방법이다. 우리는 동성연애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성적 도착의 깊이를 인지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죄악이며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성서적인 입장을 지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성연애의 삶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전 6장9-11절). 우리는 기독교적 윤리와 동성연애의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일체의 태도와 진술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성윤리의 성서적 규범에 관한 명확한 설교와 가르침을 적극 권장한다.

(창 1장27절; 19장1-25절; 레20장13절; 롬1장26-27절; 고전6장9-11절; 딤후1장8-10절)

중앙감독위원회의 공식 선언문

나사렛성결교회는 그들의 성적인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남자와 여자를 존엄성과 은혜,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연애적 삶의 방식이 죄이고 성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확고히 견지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나사렛인들이 거룩한 사랑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가장 엄격하고 시종 일관된 성적인 순수함으로 표현되는 성결한 삶으로 그들을 재현신토록 하는 우리의 소명을 재차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일평생에 걸친 관계로서의 성경적 개념의 결혼이 성적인 친밀함의 은사가 적합하게 표현되는 유일무이한 관계임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성경이 동성연애에 관하여 말해주는 것

성경은 동성연애적 행위들이나 삶들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동성연애의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토론들의 독소를 표출하는 환경에 기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성연애의 문제”의 두 가지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는 학자들은 동성연애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성경구절들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성경에 적은 수의 구절들이 나타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성연애의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성경시대 속에서는 결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구약이나 신약성경은 모두 동성연애의 삶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들의 신앙 공동체들 속에서 허용될 수도 있는 것들 중의 하나로서 동성연애의 삶이 결코 고려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동성연애의 삶에 대한 유혹이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로 갈등하였다는 암시가 없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두 이야기들은 서로 유사하다. 창세기 19장1-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두 천사들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더불어 그 날 밤을 지내도록 초대되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두 남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롯이 두 남자들을 이끌고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롯은 그 남자들의 요구를 “사악한”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돔의 남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구절들이 그 도시의 도를 넘는 사악함의 한 보기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구절들은 또한 소돔을 이스라엘의 일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 속에서 소돔의 남자들의 동성연애적 욕망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거나 묵인되었다기 보다는 이교도들의 실체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사사기 19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유사성이 있다. 한 남자와 그의 첩이 베들레헬 북쪽에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여행 중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 몇 마일 지점인 길보아에서 멈추었고, 거기서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하여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과 그 남자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이 그 남자 손님을 데리고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이교도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은 길보아의 남자들이 제안하는 동성연애적 행위들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그들은 “사악한 남자들”로 기술되고, 그들의 행위들은 “비열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불리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남자들의 동성연애적 욕망들은 그들이 첩에게 집단 성범죄자들의 강간과 학대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성적인 도착증을 반영하여 준다. 동성연애의 삶을 소개하는 구약성경의 세 번째 예는 레위기의 성결법(Levitical Holiness Code) 중 에서 자주 언급된다. 금지된 성관계들에 관한 규례들 중에서, 레위기18:22, 그리고 20:13은 남자들 사이의 성관계들을 분명하게 금지한다. 동성연애 행위들의 금지는 구약 성경에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을 만큼의 분명함으로 기술되어 있고, 한편으론 초대 교회가 이와 동일한 금지를 계속하여 고수하는 방식으로 신약성경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또 다시 서로 유사한 두 구절들을 만나게 된다. 디모데전서1:9-10절은 죄들과 죄인들의 목록을 담고 있다. 복음에 거스려 행하는 사람들로서 살인자들,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납치범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동성연애자들이 열거되어 있다. “동성연애자들”로 사용되어진 희랍어는 현대적 번역으로 표현하기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 새국제성서번역(NIV, 1984)은 “성도착증자들(perverts)”, 좋은소식성경(the Good News Bible)은 “성적 도착증자들(sexual perverts)”을 사용하고, 새개정표준번역(NRSV, 1984)는 “소돔인들(sodomites)”을 사용한다. 이 희랍어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바 있는 레위기 18:22의 희랍어 번역으로부터 바울에 의해 병치되어졌음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6:9-11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에 나와 있다. 사도 바울은 동성연애의 삶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성적인 범법자들(sexual offenders)”로 NIV (1984) 성경에서 번역된 그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10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이다. 고린도전서 6:9에서 “남창들(male prostitutes)”로 번역된 첫 번째 단어는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진 단어이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드러운”이다. 그 단어는 신약성경 시대에 남자 동성연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혹은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말하는 비속어의 하나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 용어는 동성연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남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제공하였던 젊은 남자들을 묘사한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6:9에서 이 두 용어들은 동성연애의 성욕적 관계에서 첫 번째는 수동적인 상대, 그리고 나중엔 능동적인 상대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분명하게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용어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회심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신약성경에서 동성연애의 행위를 다루는 가장 분명하고 세부적인 구절은 로마서 1: 18-32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인간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성연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불의한 형태 중의 한 보기로서 본문에 담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 구절은 동성연애적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울의 논쟁의 흐름은 동성연애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는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동성연애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는 삶으로 분명하게 간주했다. 그의 표현은 동성연애의 삶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대한 역겨운 거부라는 논쟁을 했던 당시의 몇몇 철학자의 언급들을 반영해 준다. 성경에서 최초로 여성 동성연애의 삶이 남성동성연애의 삶과 더불어 거부되었음이 주목할 중요한 내용이다.

동성연애 행위를 언급하는 성경 본문들은 부적격하고 승인치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고, 전체적 성경의 증거는 동성연애 행위 금지를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교회는 성경의 성관계에 관한 가르침들을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것으로 항상 받아들여 왔다. 인간의 성에 관한 표현들은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적이며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제한되거나 상황화되지 않는다.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이 우리 인류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는 보편적인 것이지 하나의 문화적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예외는 독신이다. 성경은 일부일처에로서 서로 다른 성의 결혼이 성적 친밀함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하고 적합한 정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동성연애 행위에 대한 성서적 정죄들이 문화적으로 뒤쳐진 부분으로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성서적 관점에서 동성연애는 죄인 것이다.

교회의 전통은 동성연애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의 전통은 1900여 년 이상 동안 동성연애 행위(이러한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에 관한 금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해 오고 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주요한 목소리들은 동성연애의 행위를 죄 되고 부도덕한 것으로 정죄해오고 왔다. 초대 교회(A.D. 100-600년)는 동성연애 행위를 정죄하였다. 초대 교회의 신학적 문헌인 디다케는 간통과 간음과 더불어 최악이고/부도덕한 것으로 arsenokoitia와 paidophthoria(두 단어들 모두 동성연애적 행동을 명칭함)를 열거한다. 터툴리안, 데오빌루스, 아데노고라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모두는 동성연애는 비본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었다. 존 크리소스톰은 진정한 희락은 오직 본성적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성연애 행위는 참된 희락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 이들 모든 신학자들은 소돔인의 정욕을 동성연애 행위에 의해 취해진 도덕적 도전에 연결 짓는 성향을 보였다.

15세기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동성연애 행위에 반하여 도덕적 논쟁에 있어 한 구분을 짓는다. 질서 속의 사랑(charity)과 무질서의 사랑(cupidity) 사이의 구분은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된다. 그것은 또한 도덕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결정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모든 다른 사랑은 건강한 초점을 갖게 된다. 우리가 자기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모든 다른 사랑들은 왜곡되게 된다. 삶, 그것이 자아 중심적이 될 때, 건강하지 않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무질서한 사랑은 죄의 본성과 세상의 환경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무질서함의 한 보기가 동성연애인 것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죄는 욕정(정욕)이다. 사랑이 무질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질서를 뒤바꿔놓는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동성연애의 행위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언급하는 이유의 일부분이다. 초대 교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어거스틴은 소돔인들의 정욕이 동성연애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대한 13세기 신학자인 아퀴나스는 동성연애의 행위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위반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16세기 독일의 개혁자인 루터는 동성연애의 삶을 살고 이를 묵인하는 것을 로만 카톨릭 교회의 영적인 부패함에 연결지었다. 그는 초대 기독교 교회 교부들이 소돔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본성적 욕망의 결과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존 칼빈은 동성연애 행위에 대한 내적인 성향을 정죄하였다.

웨슬리안의 답변은 동성연애 행위가 부도덕한 것이라는 분명한 신념에 의해 정의된다.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여온 전통과 더불어 성경은 모든 동성연애적 행위가 타락한 성품의 일부분임을 분명하고도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 말해준다.

동성연애에 관한 많은 토론에 연관된 문제들에 답해야 하는 도전은 인간 행동에 관한 도덕적 영역의 해석과 관련하여 성경의 우선순위의 침식에 의해 더 난해해졌다. 다양한 표준들이 동일한 권리로 주어질 때, 인간 행동의 병리학을 위한 더 확장되고 덜 구체적인 설명들을 허용하면서 성경적, 교회적 규범들은 쉽사리 제쳐질 수 있다.

동성연애적 성향을 둘러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결정짓기 위한 과학적 실험들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반면에, 유전적, 호르몬에 관련된, 혹은 신체적 영역들에 호소하며 이끌어내는 이론들은 결코 결핍된 적이 없다. 또 다른 이론은 뒤틀린 가족 관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적 정체성 혼란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놓는 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결론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우리는 동성연애의 논쟁에 있어서의 또 다른 면에 대한 이른바 과학적 발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것의 대부분은 연구자들 개인의 연구기준들에게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목회임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적 설명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동성연애가 실재하고, 조만간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관한 심각한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요구 받게 될 것이란 것이다.

확신의 정황 속에서 자비

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양면성을 모두 제시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의지적 선택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성적인 성향의 병리학은 제쳐두고라도, 우리의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성적인 행동은 하나의 선택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과 중앙감독위원회의 공식선언문은 행동과 성향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짓는다. 하나는 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성/동성과 함께 동성연애 행위를 하는 것과 관계 속에 동성연애가 되는 것은 도덕적 이슈이다. 따라서, 동성연애의 행위는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타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죄처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은혜에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어떤 부분이다. 동성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며 그것에 반응을 요구하는 한 교회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장소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교회는 동성연애 행위의 받아들이거나 동조함 없이 동성연애에 기울어 있는 사람들로 은혜의 초대 범위를 넓혀야만 한다.

명백하게, 동성연애 행위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금지된 것으로 표현된다. 동시에,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신실하고 사랑하는 관계들을 위한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셨는가를 경이롭게 표현해 주고 있다. 결혼은 그러한 관계들의 축소판이며 사도 바울에 의해 삼위일체와 같은 이라는 언어로 묘사된다. 성부-성자-성령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나누어주는, 연합하는, 다른 이를 위하는 사랑이다. 인간들로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빚어졌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우리들 몸의 각각의 부분은 기능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성적인 기관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서 잘 맞추도록 창조하셨다. 이 “맞음”은 생리학적이고 또한 심리학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이다.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도록 창조되었고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하도록 신체적으로 설비되었다. 우리는 성적인 연합이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신체적 행위를 통해 일평생 헌신하는

언약이 찬양되도록 설교하고 가르친다. 성적인 연합은 함부로 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일평생-연합의 표현이다.

동성연애적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평생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어진 사실적 실재와 더불어,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파괴적이고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동성애적 행위 속에서, 성적인 결합은 언약을 이루는, 생애 결합의 경험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친밀한 결속과 함께 하는 헌신이 결여되어 있다. 만족을 느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사물화시킴으로서, 동성연애적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총체적인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는 인간의 자질을 파괴한다. 그것은 관계적 자살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 관계들의 신성함을 파괴한다. 우리가 결혼의 헌신이란 깊이 없이 서로가 성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 이하의 상태가 된다.

동성연애의 행위를 용납하고자 하는 논리는 본래부터 이기적인 것이다. 이 논리는 동성연애적 욕망들은 본성적인 것이고 사람은 그들의 본성적 욕망들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무슨 영향을 주든 지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놓도록, 그리하여 자기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의 욕망들을 다스리도록 부르심 받았다. 이기적인 성적 추구의 함정은 쉽게 빠져들지만, 거기로부터 빠져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 양상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파고들어와 그릇된 길의 흔적을 만들어 놓는다. 동성연애 행위는 한 사람, 그들의 관계, 가정, 세상을 망가뜨린다. 그것의 심각한 결과들에 상관없이 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명백히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면서 동성연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순된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1) 나는 동성연애자이다, 그리고 2)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어떤 하나가 나머지 것을 대신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그의 혹은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 만일 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람의 성관계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동성연애 행위 죄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에 순종함으로 굴복해야만 한다. 만일 한 사람이 “동성연애를 행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성경은 그 개인의 성적인 성향에 굴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성연애가 하나의 이상으로 되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동성연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혹은 그녀의 성적인 성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압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위에 놓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상인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성연애적 성향과 동성연애의 행위 사이의 구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성연애적 성향은 같은 성의 누군가 더불어 성적인 친밀함을 갈망하는 성향이 다. 동성연애 행위는 같은 성을 가진 누군가와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욕구이고, 두 번째는 행위이다. 동성연애적 성향들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그 자신 혹은 그녀 자신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붙잡아주시는 은혜 속으로 그 자신 혹은 그녀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어드리어야 한다. 그 부르심은 또한 성적으로 훈련된 절제의 삶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은 이성연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부르심과 동일한 것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성적 성향에 관한 문제들을 안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지역사회 속에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적절한 상담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누군가의 성적 성향을 둘러싼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적절한 목회적 돌봄과 병행되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좀 더 다루어져야 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낙관론을 수용하고,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성향의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는다.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마무리 언급

그리스도의 몸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헌신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정죄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이라”(요한복음 3장16-17절).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 행위는 인간의 불의함의 가장 나쁜 형태들 중의 하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한편, 그는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술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5장8절);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8장39).

하나님은 그 혹은 그녀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은혜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와 놀림은 그리스도의 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데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난한 여정의 한 편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려는 현존해 왔던 유혹을 거부하자. 동성연애를 향해하는 것은 단순한 여정이 좀처럼 될 수 없다. 우리는 동성연애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경험된 좌절감을 덮어버리는 단순한 처방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 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한 사람의 성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성연애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거나 동성연애적 행위가 본성적인 것-“이게 바로 나다”-라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제공할 수 없다는 신념 속에 잠식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부르지만 그것과 거리가 먼 동성연애자의 합리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타 교단들이 동성연애적 생활양식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재가하기 시작했고, 혹은 심지어 동성연애적 생활양식이 완전히 본성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되었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복합적인 여정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울처럼 비추어보아야만 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도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 주님은 그 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었다. 그 분은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제공하시고, 그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증거된다. 하나님, 그 여정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동성연애 그 근원들과 그것의 결과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 주저함으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이 충분히 사랑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장소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기독교 전통,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동성연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공표하고도 지속적으로 확증한다. 동시에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희망을 지적해주어야만 한다. 웨슬리안 신학은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소망스런 은혜의 자료들을 제공한다. 은혜에 의해, 하나님은 그들을 동성연애의 욕망들로부터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소망으로 가득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동성연애자들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만일 동성연애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환영을 제공한다면, 갈등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찾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그가 혹은 그녀가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2011년 9월 이십일에 개정됨